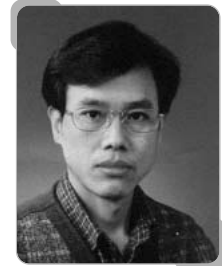


사 레 연 구

# 공공도서관 기능을 위한 건축 제언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공공도서관 내부 공간 변화 요인
- III. 공공도서관 건축 제언
- IV. 맺는말



오 종 필\*

## I. 들어가며

도서관에 근무하다 보면 도서관 시설을 답사하고 사서들에게 종종 도서관건물에 대해 열심히 질문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그때마다 도서관에서의 짧은 경력이나마 조금이라도 그 설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조언해 주곤 한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다. 개관 시점에 맞춰서 급박하게, 법정 최저기준이나 예산에만 맞춰서 지어졌기 때문이다.

‘도대체 건축설계가 뭐 길래 시설사용자(이용자, 도서관직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가’ 하고 건축 관련법을 들추어보니 공공도서관 건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정보, 여가, 문화활동 등의 공공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하려는 목적으로서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건축물을 짓기 위함이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충분한 여론조사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어서, 기존의 시설물 이용자들의 여론조사와 공공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기간 참관해 온 사서들의 의견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건물계획에 반영할 만도 한데, 다름도 아닌 “도서관” 건축

\* 한밭도서관 사서, han-lib@hanmail.net

계획에 사서들은 발 들일 수 조차 없고 오히려 뒷전이다 보니, 건축 관계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건물에 일반 입주자처럼 그저 그 시설에 맞춰서 개관준비하고 운영하는 행정 행태로 진행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서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시설, 장서(자료), 직원, 이용자를 거론한다. 그러나 도서관의 기초학문인 문헌정보학에서는 정보의 수집, 정리, 열람, 대출 등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보 또는 자료관리에 중점을 두어 도서관 건축이나 시설 등은 학제의 관심 밖으로 두려왔거나 도서관학을 문헌정보학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고, 애써 외면해 왔다.

이처럼 공공도서관 건축에 대해 사서들이 외면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시설중심으로 일반열람실 제공에 따른 염증과 학제가 아니라는 사실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자치단체에 부속되거나 소속된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 건축은 지금까지 도서관의 건축이 도서관에 장기간 근무해 보지 않은 도서관전문가나 사서가 아닌 도서관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향후 도서관 기능을 좌지우지하는 설계도를 심사하는 '설계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으로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직 등으로 이루어져 실제 도서관을 운영해야 할 사서들의 의견은 배제되고 사전에 건전한 도서관건물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가 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이미 결과물이 나온 다음의 개관시점에서나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고만다.

도서관건물은 도서관기능을 한정하며 세부운영 사항들을 일일이 구속하며 그 안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가지 환경을 지배하며, 이 환경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열람실의 쾌적성과 이용 편리성을 위한 자료 및 설비 지원, 이용절차의 필요성 도모, 자료의 정리 정돈 상태 관리, 적정한 이용시간 운영, 내부시설 청결상태 유지 및 시설 관리, 계절별 냉난방시설의 실내온도 적정성 유지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에서 시설과 관련되지 않는 도서관 업무가 거의 없다.

최근 일부 도서관의 건축계획에서 종종 사서직의 참여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상위기관, 건축관련 자문교수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도서관 건축에 미치는 사서들의 영향력이 미흡함에 따라 급기야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들의 준비에 의해 도서관 건물이 먼저 세워지고, 심한 경우 자료까지 채워진 후에야 사서들이 채용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렇게 되다보니 도서관 건물의 겉모습은 그럴싸하나 내부는 도서관 활동에 전혀 적합하지 않게 배치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열람실이 도서관의 중심부에 배치되고 그 공간면적도 비대하게 배분되는 경우 등이다.

물론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부분들은 '건축'의 영역임에 틀림없고 도서관 건축은 사서들의 전문분야는 아니다. 그러나 도서관 건축의 결과물인 도서관 건물은 도서관의 기능과 도서관 현장 실무와 운영에 있어서 분명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도서관 건축계획에 있어서 세부적, 기능적 영역들은 반드시 '사서영역'에서 적극 참여해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목적과 직결된 도서관 건물과 세부적인 제안까지 인사이동이 없는 단일도서관에서 평생을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의 다년간 경험을 살려내고 차후 도서관 건축을 계획할 때 도서관의 기능상 고려되거나 추가, 개선을 바라는 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을 기록해둠으로써 도서관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살려 낼 수 있는 도서관 건축이 되도록 하며,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아가 도서관 건축계획에 사서들의 공식적 참여가 더욱 더 바람직한 도서관 건물을 구현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였다.

## II. 공공도서관 내부 공간 변화 요인

도서관은 외부환경(이용자요구, 여론, 경제상태, 관련 기술변화 등)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대처하는 기관이므로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 각 공간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정보화기기의 발달과 멀티미디어 정보에 대한 요구 증가로 정보검색 공간의 형성과 전자정보실이 확대되었고, 개가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공간 부족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서량에 대비한 공간 확보가 불가피해졌다. 문화생활의 욕구 증가와 전자정보 교육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상담실, 문화교실, 컴퓨터교육실, 어학실 등이 확대되고, 관리업무공간에서는 업무전산화에 따른 전산실이 구성되었으며, 직원 당 PC 보유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요공간의 증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정보화관련 장비의 도입으로 도서관은 내외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설비공간-전산캐널, 프린터, 중앙컴퓨터실, 향온습기, 정보검색공간, 멀티미디어, LAN배선 등 을 요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전산화 및 전자도서관 구축 및 공공도서관 집회문화기능의 확대에 따른 공간소요로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공공도서관의 공간계획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함과 동시에 전자도서관은 인쇄매체의 “확장”으로 이해해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흐름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공간계획은 입지계획, 구역설정 및 동선계획, 모듈계획, 구성요소의 배치계획, 평면계획 및 블록구성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입지계획은 다양한 이용자계층과 봉사대상 지역의 규모, 인구 분포, 타문화시설과 기업체 유형, 자연적 및 인위적인 지역경제와 지형 등 지리적 요소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도서관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핵심적인 관건이다. 지역사회 정보센터, 독서와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오다가다 들리기 쉬운 곳에 자리 잡아야 한다.

### Ⅲ. 공공도서관 건축 제언

도서관을 개관하고 10여년이 지나면, 부식 등으로 인한 설비시설의 고장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서고엔 장서가 가득 차게 된다. 그 해결책으로 증축이나 내부구조 변경이나 내부 인테리어 등이 제시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은 적재하중이 높아야 가능하며, 수평증축이나 주차장은 주변의 여유로운 부지가 확보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내부 인테리어는 작은 도서관을 신축할 만 한 수억의 예산을 확보 할 때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설계 단계에서의 장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좀 더 심사숙고하는 계획,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가 도서관 기능에 만족할 만한 건물 계획,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인원수용 시설로서 손색이 없도록 개관 이후 좀 더 짜임새 있는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물유지관리에 경제적인 도서관 건물로 구현해 낼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던 중에 다른 사서들도 건물에 대해 한(의견)이 많은 것을 알았고, 이 의견들을 모아 놓는 것이 좋겠다는 발상을 하게 된 것이다.

도서관건축 또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현장 사서들은 도서관 입지에서부터 설비, 열람실, 서고, 자료실, 채광 등 세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 다음은 도서관 건축계획에서 상대적으로 간과했던 사서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담은 것으로 도서관건축 시 고려사항 등을 전화로 문의하여 부분별로 정리한 것이다.

#### ■ 사전참여, 설계부문

- 도서관 건축계획 시 전문가집단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장서증가, 이용자 수요, 일정량의 자료가 자료실 또는 서고에 잘 것인지 소요연수(坪當 所藏比率)는 반드시 예측해야 한다.
- 도서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하여 도서관이 건축되므로 최소한의 경제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도서관이 지어져 현실적으로 예산에 맞게, 안정성 위주로 도서관이 건축되고 있다.
- 도서관 건축기획단 등에 경험 많은 사서가 참여하여 설계단계에서 사서가 포함된 심도 있는 사전 답사, 건축행정 부분과의 탄력적인 협력 및 협의 관계 설정으로 설계심사, 실시설계 등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때 도서관 기능에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 및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 외국사례로 건물 짓기 전에 배치도 계획한 후, 관련위원회에 사전 허락을 받은 후 확정하여 그대로 시행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 ■ 건축, 토목부문

- 도서관건축 기본방침에 건축면적, 좌석수 등은 대부분 명시되어 있지만 장서소장능력은 없다. 도서관 건물의 기본은 도서를 담는 커다란 창고 역할이므로 차후 도서관건축 기본방침에 명기해둘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은 성장, 변화, 확장의 개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장서수와 열람자수가 자연히 증가하게 되므로 신축시에는 장래의 (10~20년 후) 증축을 고려하여 부지와 서고, 열람실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져야 한다.
- 과거에는 폐가식 운영으로 고정 서고가 따로 있었지만 현재에는 개가식 운영으로 변화하여 건축설계 시 도서관 전체가 서고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건물의 적재하중비율은 정확한 이용자 예측, 자료비치 무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약하게 할 경우 수직 증축이나 구조 변경 등을 아예 못하게 된다. 법정 서고 적재하중은  $\text{m}^2$ 당 700kg 이상이다.
- 정보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건물로서 가급적 비내력벽 설치보다는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여 성장으로 인한 장래의 변경에 대비하여 융통성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내력벽 이외에 벽체는 두지 말고 기둥만 남겨놓아 가변적으로 공간구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해야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가시공간이 넓도록 투시공간화 하고 공간의 전용과 가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해야 관리비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자료실 출입문은 유리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로비를 중심으로 자료실과 열람실을 배치한 형태는 로비의 소음이 고스란히 전해짐으로, 불투명 철재 출입문 보다는 투명유리문 등으로 시설하면 소음차단 효과와 열린 공간 이미지, 미관상 시각적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
- 공공도서관 주차장 문제는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으로 또 다른 도서관 건축계획을 해야 할 정도로 부지 및 토지매입,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만큼의 예산이 많이 투입해야 하는 등, 다중이용시설로서의 상당한 하자사항이 되므로 주차장은 차후 도서관 건축설계에서 최우선과제로 해결해야 할 사안 중의 하나다.
- 화장실은 각 층마다 남, 여 별도 설치하고 사무공간의 안정성과 직원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직원화장실을 일반 이용자와 따로 시설되어야 하며 창문은 소음차단이 가능한 소재 및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건축계획(Design)의 방향 결정은 리모델링 및 신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다. 현대적 형식(modern)이나 전통적 형식(Classic)인가와 자연스러운 형식 (natural)인가와 실용성 또는 미관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등이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 도서관은 전면 유리 시공으로 멋진 외관을 자랑하고 있으나 냉·난방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 이용하는 시민들과 직원 모두 어려움을 겪었고, 파손의 우려와 유리를 자꾸 두드려 보는 소음 등에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

## ■ 전기, 통신부문

-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구축으로 네트워크, 디지털 전화, 무인경비시스템 등은 건축설계 시 반영하여 다른 배선공사와 통합 발주하여 비용절감과 건물 미관상 훼손을 방지하고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CCTV, 무인경비 시스템 라인은 각 실마다 설치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라인은 추후 증설이 가능하도록 층별 메인과 각 실에 여유 있는 배선이 고려되어야 하며 모든 시설물의 자동제어와 이용자 관리를 중앙 집중화해야 인력 절감과 쾌적한 환경제공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 도서관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하고, 서비스 변화에 따른 장서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승강기의 규모는 서가 등을 이동할 수 있는 크기로 시설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도서관에 시설하는 리프트는 가능하면 직원전용으로 도서와 직원 1,2인이 탑승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조명의 효율이 좋도록 천장높이를 가능한 낮게, 조명시설은 절전용 형광등, 서가 조명은 책이 퇴색되지 않는 조명등을 설치하고 환기시설 등은 도서관임을 감안하여 제 규정을 준수하고, 도서관은 대부분 시각에 의존하는 독서시설임을 재인식하여 자료실 등의 독서공간은 밝을수록 좋으나 조명은 500룩스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쪽 방향 서비스(이용자) 공간은 자연채광이 아니면 아주 어둡다. 환하면서도 빛을 오랫동안 받는 남서향구조로 설계되어야 전력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전자자료실, 전산 관련실 구축시 Access floor를 건축바닥 높이와 같도록 기초공사 시 20cm 정도 아래로 시공하면 출입이 간편하고 외관상으로 좋으며 관리하기도 수월하다.
- 한 겨울, 한 여름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는 사안으로 환기, 소음, 열관리(냉방,난방)등은 유지관리측면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종으로 시설되어야 한다. 수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동파이프 등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질의 경우 처음에 초도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지만, 예산에 맞춰서 일반 설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설비 등이 부식되어 고장난다. 그러나 도서관 건물 자체를 해체하지 않는 한 배관 등을 바꿀 수가 없다. 개관 이후엔 건축비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더 소요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냉방, 난방설비 시는 최대 수용인원을 산정하여 그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하며, 대부분 10년 이후에 고장이 잦으므로 안정적이고 검증된 기계를 도입한다. 도서관 구조만큼이나 이후 도서관 신축 시 참고하여야 할 핵심 사안이다.
- 도서관 현관 출입구 및 1층은 도서관이용자들이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도서관 기능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이용자를 환영하는 느낌이 들도록 계획하고, 도서관 일상 업무는 업무대로 기능하도록 하고 단기적 문화행사 추진 등을 위해서는 별도로 접근이

가능하고 개폐 가능한 출입문이 필요하며, 이용자의 동선이 짧아지도록 층별 기능을 부여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 ■ 자료실/서고/열람실

- 서고와 자료실 공간은 이용자가 서고도서를 찾아 줄 때 거리가 멀고 이용자는 기다려야 하고, 출판년도가 오래되어 서고에 있는 도서는 찾아주기 번거로우므로 멀리 내다보아 서로 연결되어 있도록 하고 자료실과 서고는 가능한 한 가까이 두어,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공도서관의 개인학습 공간 문제를 도서관 기능에서 버릴 수 없다면 광진정보도서관처럼 독서공간과 구분된 학습 공간 등(棟)을 따로 두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도서관 열람실은 자료실 또는 일반열람실로 쓰이나, 애초에 계획할 때 데스크(대출업무 등)를 두어 일반열람실과 차별성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열람실을 자료실(대출실)로 사용할 경우, 업무에 의한 자연 소음(대출할 때 나는 소리, 전화 소음, 프린터 소음)이 발생하여 열람데스크 직원들은 항상 노출되어 민원이 잦으므로 서비스 지원 공간이 필요하다. 서비스 지원공간은 유리 등으로 방음된 내실 등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업무상 있을 수 밖에 없는 자연소음을 줄일 수 있다.
- 과거에 서고 등에 시설한 석면 등 인체유해재료를 사용하여 시설한 장소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건축소재 선택시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 도서관 1층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실이나 어린이자료실이 배치되어야 하고, 계단을 시설할 경우 유도차 및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시설을 해야 한다.
- 서고는 도서를 장기 보관할 수 있을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하며, 지하 설비 배관 등이 지나가는 곳 등에 배치하는 지양해야 한다.
- 다른 자료실의 건축과 서고와의 연계성이 중요시 된다면 어린이실은 소규모 강당·이야기 방 등 다양한 형태의 열람공간·유아공간·서고가 망라된 하나의 종합공간이 필요하며 여기에 인터리어가 필수요소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 독서회·동아리·체험학습·문화강좌를 위한 공간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문화 욕구와 관련, 저자 강연회 등과 같이 비교적 중규모 인원(80~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 1실, 각종 동아리와 독서회의 활동 공간(15~25명), 문화강좌(40명)를 개최할 세미나실 2실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행사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강좌나 강연회는 항시 영상자료 등 시청각 기자재가 필수요소이므로 건축계획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빔 프로젝트 등의 시청각기자재가 부가적으로 구비되어 기자재 사용이 안 되거나 번거로운 애로 사항이 없도록 고려해야 한다.

### ■ 설비, 기계

- 창문 없는 지하 서고 배치 시 집진시설, 환기시설, 제습기능 등의 설비가 완벽해야 서고로서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지하에 식당이 배치되는 경우, 지하가 쌍방향 통풍이 되면 덜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식당의 냄새가 건물전체에 퍼지고 스며든다. 그러므로 냄새와 반입 반출 음식물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따로 동을 두거나 최상층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 비교적 큰 건물일수록 책벌레 등이 많아 환기문제가 대두되므로 이용자 및 직원의 건강 등의 근무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되기 위해 닥트 등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설비로 시설해야 한다.
- 아래에서 당기는 형식의 창문은 통기성 부족으로 일반 열람실엔 냄새가 배인다.

### ■ 구(區)단위 작은도서관

처음에 가 본 어느 구(區) 도서관은 28평실에 “종합자료실”이란 명패(!)를 달아 놓았다. 아주 비좁았다. 이렇게 되면 자료실과 서고가 비좁아 해마다 입수되는 도서를 배열 할 자리가 없다. 이럴 때 사서들이 흔히 “책을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어찌란 말인가!”라고 말한다. 아무리 작은 도서관이더라도 중심자료실의 건평은 100평은 넘어야 7-8 만권, 10년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구단위 도서관(500-800평)은 공공도서관의 성격에 비추어 각 공간의 실 면적을 살펴보면, 좁은 장소에 도서열람기능, 문화관람기능, 독서실 기능 등 모두를 수용하려다 보니 어느 기능 하나 만족할 만 한 기능이 없어, 항상 이용자들은 자리 또는 자료가 없으며 불만을 토로하며, 사서들은 자료 쫓을 자리가 없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최소한의 실 배치만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공간의 협소함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용자 수용능력, 장서 수용능력의 협소함은 좋은 의미의 집에서 가까운 작은 도서관 운동의 흠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자료수용 능력의 한계는 도서관의 주요기능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도서관 건축면적 기준은 상향조정 되어야겠다.

## IV. 맺는말

현재 공공도서관 대부분의 운영은 폐가제에서 개가제로 바뀐 지 이미 10여년이 지나 있으나 이용자들은 주로 일반열람실 이용자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의 장기간의 기형적인 운영은 과연 직원(공무원) 사안인가, 아니면 이용자 요구 사안인가? 그 혼한 사회구조가 문제인가를 묻게 되는데, 언급해보면 시급하게 실적과 결과물을 바라는 행정의 행태 개선,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변화, 사회적 고용 문제(시협)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법은 제시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단 시간 내에 쉽게 해결 될 일이 아니다. 다만, 도서관 최초 건축 계획시의 도서관 건물의 구조 역시 도서관의 기형적인 운영 사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도서관 건축 계획시 이용자나 사서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도서관 운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평상시 도서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용자들의 건의 사항, 불만사항 등은 때때로 도서관 운영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도서관 건물에 장기 노출된 도서관 직원들이 건물에 대해 아쉬웠던 점, 답답했던 점, 그 문제 하나로 인해 다른 사항을 발목잡고 있는 사항, 불만사항과 제안사항들은 차후 건축될 도서관 건물에 대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장 사서들의 제안 모두를 충족시키는 도서관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건축 예산의 한계에 당연히 맞닿기 때문이다. 물론 도서관 건축이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한계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도서관기능의 최소조건을 외면하고 예산에 맞춰서만 도서관을 외관 중심으로 건축된다면 바람직한 도서관 운영은 요원하다. 이러한 경제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오랜기간 현장에서 지내온 사서의 경험은 중시되어야 한다.

계획단계에서 건축가와 도서관건축 행정담당자는 도서관 사서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이용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장기간 상주하는 도서관 직원들의 제안이 공공도서관 건축 계획에 반영된다면 보다 더 합리적인 공공도서관 기능을 충족시키는 도서관으로 시민 이용자들에게 다가 설 수 있을 것이다. (주)



〈신탄진도서관은 총 소장능력 30만권을 기준으로 건축하였다. 현재 개관한지 몇 년되지 않아 도서자료는 약 10만권 가량이지만, 현재 여러칸 일반열람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경량칸막이를 제거하도록 설계되는 등 가변적인 구조로 건축된 도서관이다. 도서관 설계 등에 기존 관내(대덕구)도서관이던 안산도서관 사서직 관장이 많은 부분 참여하였다.〉



〈한밭도서관 1층과 2층사이에 천정 블럭구조물(박스모양 : 포스트텐션(Post-tention)공법)의 강한 인장력으로 인해 자료실, 열람실 등 실내가 기둥이 없는 구조가 가능해 소장능력 배가 및 가시공간이 넓다. (기둥없는 구조로 자료실 중 큰 것은 약 300평 정도)〉